

## 11장. 바벨탑의 건설, 셈과 데라의 족보

### 1. 바벨탑의 건설과 하나님의 심판 (11:1-9)

바벨탑 사건은 10장의 계보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벨렉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세상이 나뉘었다(10:25).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땅에 편만하라”하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큰 탑을 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흠어짐을 면하자고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모습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나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흠으셨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을 본다.

11:1-9의 기록은 10장의 족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여러 민족으로 나뉘는 무렵에는 이미 언어가 나뉘어 있었다(10:5, 20, 31). 10:10에 시날 땅에서 니므롯이 건축한 이야기가 있는데, 11:2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은 것이라고 기록한다.

#### 1) 사람들의 의논: 성과 탑을 쌓자 (11:1-4)

노아의 후손들은 북쪽의 아라랏 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두 강 사이의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은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홍수 후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편만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한 곳에 머물려고 하였다(9:1, 7).

이들의 첫 번째 의논은 건축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고대에는 보통 벽돌을 만들 때에 햇볕에 말렸는데, 이 사람들은 벽돌을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또한 진흙 대신 더 끈끈한 역청으로 벽돌을 쌓기로 하였다.

두 번째 의논은 성과 탑을 쌓는 목적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성과 탑을 쌓아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르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꾀이 있다(참조. 창 3:5). 하늘까지 닿으려는 것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다(사 2:15-17).

둘째, 그들은 높은 건축물을 만들고 통일된 사회를 이루어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나 니므롯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다(6:4; 10:8-9). 그러나 이전 시대 고대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셋째, 그들은 탑을 쌓음으로써 흠어지지 않으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9:1, 7), 그들은 흠어지면 힘을 모으기가 어렵게 되므로 한데 모여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이름을 내려고 하였다.

#### 2) 하나님의 내려오심(11:5)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신’ 것은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사실이 그러한가를 알아보시려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내려오셔서 사실을 확인하셨다(창 18:21).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이미 다 아시지만, 이러한 형식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옳은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다.

#### 3) 하나님의 의논: 심판 (11:6-8)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시도를 막으려고 하셨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흠으심으로써 그들의 시도를 그치게 하셨다. 죄 자체를 놓고 보면 다시 홍수로 심판하실 만한 것이었지만, 세상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흠으시기만 하셨다.

#### 4) 심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11:9)

10장의 족보는 홍수 후에 여러 나라들로 나뉜 이야기로 끝나는데(10:32), 이렇게 나뉘어서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사건 후에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배운다(합 3:2).

### 2. 셈의 계보 (11:10-26)

11장에 나오는 셈의 계보는 10장에 나오는 계보와 달리, 앞서 5장의 선택된 자의 계보처럼 첫 아이를 낳을 때의 나이와 그 후에 몇 년 더 살았는지를 기록하였다. 11장의 이러한 셈의 계보는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5장의 계보에서도 10명을 기록하고 그 마지막 인물로 ‘노아’를 기록하였는데, 11장의 계보에서도 10명을 기록하고 그 마지막은 ‘아브라함’으로 끝난다. 따라서 두 계보는 ‘아담 - 노아 -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바벨탑의 반역이 있었지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은 셈의 가족을 통해 내려오고 있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더욱 분명하게 계승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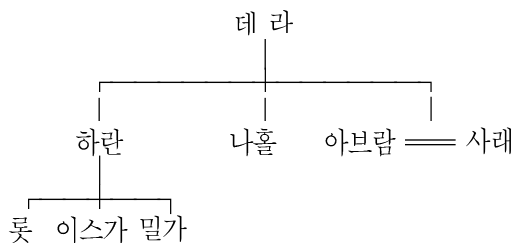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10장에 나오는 족보와 차이가 있다. 10장에서는 민족들이 퍼져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셈의 다섯 아들과 욥단의 열두 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였는데, 11장에서는 ‘셈 - 아르박삿 - 셀라 - 에벨 - 벨렉’으로 이어지도록 단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계시의 보존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셈이 복을 받았지만 모든 아들이 그 복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그중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연이어 기록해 나간 것이다. 얼핏 밋밋한 기록들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에서 우리는 구약의 교회가 계시의 말씀을 이어받고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 3. 데라의 계보 (11:27-32)

#### 1) 데라의 계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11:27-25:11)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노아의 홍수 후에 주어진 언약과 바벨탑 사건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비록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노아 가족의 일들에서부터 바벨탑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죄가 또다시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족속에 대한 복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 2) 데라의 후에 (11:27-32)



셈의 후손은 데라로 이어진다. 데라는 70세부터 세 아들 곧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중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세 자녀인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남겼다. 하란의 딸 가운데 밀가는 삼촌 나홀과 혼인을 하였고, 아들인 롯은 삼촌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까지 갔다.

아브람은 사래와 혼인을 하였는데, 후에 사래를 누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마 이복누이일 것으로 생각된다(창 20:2).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사래를 통하여 시작될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람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이다(창 17:5; 롬 4:18-19).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곳을 떠났는데(행 7:2-3),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수 24:2). 비록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아브람은 쎈의 가계를 통해 보존되어 내려오는 계시를 전했을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가나안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북쪽에 있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가 거쳐간 길은 일반적으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데라의 가족이 모두 함께 떠났지만, 아브람과 롯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는 자기들의 고향 우르처럼 달의 신을 섬기는 하란 땅에 머물렀고, 아브람과 롯만이 그곳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아브람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지만(히 11:8), 다른 식구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익숙한 곳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

## 묵상과 실천:

### 바벨탑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

#### 1. 바벨탑에 대한 심판

오늘날에도 사람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는 일이 많다. 이를테면 우주 탐사와 같은 거대한 일을 할 때에도 광대한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대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데에 온통 마음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짐승과 비교하면 사람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잠 9:10).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의 첫 발자국도 내딛지 않은 것이 된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미련한 짓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탑을 쌓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다(사 43:21).

#### 2. 두 도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으신 것은 첫째,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둘째,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심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0장에 기록된 70민족들에게, 즉 70민족으로 대표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바벨탑의 흠으신 이야기 후에 쎈의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누신 것은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참된 통일을 위해 나누신 것인데, 참된 통일은 언어의 통일도 포함하고 바벨탑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던 이방 민족들이 돌아올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흠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슥 3:9-10).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흠으신 민족들을 다시 부를 때에는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높일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느님까지 높이려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사랑하시는 그의 아드님에게서 다 찾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을 보내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던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찬양하였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흠으신 나라를 신약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나뉜 언어가 통일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늘까지 높이지려는 교만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징계를 받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이 하늘까지 높이지려고 하면서 쌓은 성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기다린다(계 18:5; 21:10, 21-27).

### 11장 익힘 문제

1. 바벨탑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2점)
2.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4점)
3.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경영을 굽히시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7점)
4.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일을 막으신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점)
5. 여호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은? (9점)
6. 아브람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10-26점)
7. 다음은 데라의 가계입니다. 빈 곳을 채우세요. (27-29점)

데라

하간	□□	아브람 = 사래
□ 이스가	릭가	보두엘
		이삭
		이스마엘
	라반	□□□

8.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8점)
9.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느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까? (31점)
10.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동행자는 누구입니까? (31점)
11.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데라가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32점)
12.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저가 됩니까? (창 9장 1, 7점)